

러시아 극동 경제특구지역의 입지특색에 관한 연구*

이 기 석

I. 서 론

1989년 이래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출은 북방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제를 통하여 구체적인 참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에 다국적 경제특구의 선치를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장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경제특구의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지역적인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특구설치 예정 지역으로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시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두만강 하류와 연계되는 하산(Khasan)과 포시예트(Posyet) 그리고 나호드카(Nachodka)와 보스토치니(Vostochny)지역 등이다. 특히 이 지역들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경분쟁이 있었던 변방지방일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워 여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의 하나이다. 그간 두만강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지역 사정은 많이 알려졌으나, 북한과 극동 러시아에 대한 지역특색은 전혀 부지 상태에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의 경제특구 설치와 관련하여 그 입지조건에 대한 기초연구의 미비로 입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역의 개발이 앞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될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입지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투자와 그 선방을 위하여 의의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일반 경제특구의 입지특색 분석, 극동 경제특구의 출현과정과 그 입지특색, 그리고 이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 분석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러시아의 정부발간 통계자료와 지도, 문헌 등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일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블라디보스톡 지방에 대한 답사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두만강 유역에 대한 답사는 중국을 통하여 1992년 6월 30일-7월 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그밖에 주요 자료로는 1991년 7월에 시작된 국제연합 개발기구(UNDP)의 <두만강 지역개발> 회의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두만강 하류답사를 안내하여 주신 연변대 류충건, 장삼환 교수와 자료와 지도를 제공하여 주신 이옥희 박사, 최상철 교수, 박혜숙 박사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지도는 모두 김영현 조교가 제도하였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지분석은 현재 UNDP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리모르스키(Primorsky)지방 남부해안 지역에 해당되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되는 지역에 국한하였다.

II. 일반 경제특구의 입지유형과 특색

극동 러시아의 예상되는 경제특구 입지에 대한 특색파악을 위한 정확한 분석은 기존 경제특구의 일반적 유형과 이와 관련된 입지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특구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탁월한 유형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것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특구의 일반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FEZ),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본적인 설치목적에서는 일치¹⁾하고 있으나, 지역설정 범위와 그 운영관리 방식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전략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서로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²⁾

공통적인 설치목적은 우리나라의 마산과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 때와 같이 ① 외국자본과 선진기술 유치(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② 국내 고용증대(Enhancing Employment) ③ 수출과 외화획득 증진(Increasing Export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④ 국가경제와 공업화 증진(Assistance to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ization)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를 통하여 부수적으로는 국제시장을 개척하게 되고,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 하며, 동시에 국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국내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메카니즘의 바탕으로 삼게 되었다.

경제특구의 입지와 규모, 그리고 설치목적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3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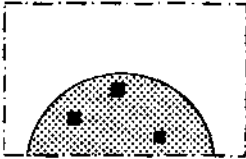
1) United Nations, *An Evalu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Bangkok: ESCAP/UNCTC Publication Series B, No.8, 1985), pp. 9-10.

2) 위의 글, pp.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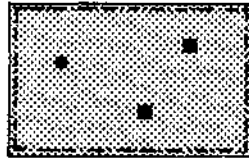
3) Ki-Suk Lee, Manik Hwang, and Hae-Un Rii, *A Study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Free Export Zones on Regional Communities in Korea* (Seoul: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p.11.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내 혹은 주변지역에 기존 산업시설이나 하부 시설과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유지역들은 규모가 모두 100-300ha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는 도시전체를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한 경우로써 도시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중심도시와 함께 주변 농촌지역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가 공업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관광분야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확대된 개념의 경제특구지역이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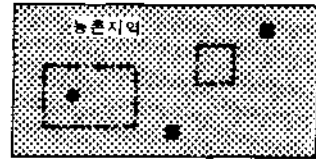
유형 1. Free Export Zone



유형 2. Free Port



유형 3. Special Economic Zone



수출자유지역/경제특구

- - - 도시경계



가공/제조 공장

<그림 1> 경제 특구의 일반적 유형

2. 입지결정의 주요인자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입지요인은 그 유형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과 원료, 노동력의 질적 사항 등이 다르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입지요인을 추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전형적 유형인 수출자유지역의 선정시 요구되는 입지를 논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지의 주요 요소 가운데 원료의 공급, 시장의 확보, 자본의 투자, 정부의 행정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분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자연적인 장애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품의 국제시장 접근성의 양호, 풍부한 노동시장과 사회·정치적 안정, 기존 기반시설에의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 용역의 수혜가 용이하고, 역외가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들 수 있다.

이들 입지조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제품과 원료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철도와 도로교통이 편리한 임해지역이 최적으로 지적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제품의 소형화·첨단화와 국제시장의 변동에 단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함에 근접한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해 입지는 컨테이너 부두와 같은 기존 항구시설이 필수적이며, 국제 해운항로와 연계되어야만 한다.

물체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동력의 공급이다. 대부분의 경제특구가 설치 초기에는 값싼 노동집약적 업체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즉,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노동력의 구조를 사례로 보면 75% 이상이 여성 노동력이며, 이들 대부분이 24세 이하의 연령층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 노동력의 75% 이상이 5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배후지역으로부터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⁴⁾

세계 요건으로는 가까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공정의 일부분을 역외가공 혹은 하청가공(Outprocessing 혹은 Subcontracting)이 가능한 다수의 관련 지방기업체가 경쟁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국내 원료공급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만이 이를 토대로 해서 기술과 관리기능의 이전이 가능해 진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지역은 대도시와 잠재 노동력이 풍부한 농촌을 배후지로 해서 입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극동 경제특구의 출현과 입지특색

1. 극동지역 개관

러시아의 극동지역(Far East)은 일반적으로 1961년 아래 쓰이고 있는 19개 경제지역(Economic Region)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으며, 대체로 레나강 이동의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북극해로부터 태평양의 남동부에 면하는 지역으로 광대한 면적에 비해 인구분포는 대단히 낮다. 대략적인 면적은 6,215,900km²에 인구는 700만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 북부는 야쿠이타(Yakuita), 추크치 반도(Chukchi Peninsula), 캄차카(Kamchatcha), 마가단(Magadan)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지역은 아무르(Amur), 우수리(Ussuri)강 유역의 아무르, 하바로스크, 사할린, 프리모르스키 등 해안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륙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1984년에 완공된 바이칼-아무르 철도(Baykal-Amur Mainline:BAM)로 연계된다. 북부지방은 철도 연결이 없어 여름기간에는 하천망을 이용하고, 그밖에 바다와 항공교통을 이용한다. 아직까지 이 지역 원주민의 상당수는 개와 순록

4) Ki-Suk Lee and Others, 위의 글.

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혁명 이전에는 이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그 지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업과 순록양육이 주업이었다. 혁명 이후 삼림자원, 광물, 수산자원이 광범위하게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러시아의 핵심부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못하였다. 주요 지하자원으로는 금, 주석, 수은, 다이아몬드, 석탄, 가스, 석유, 수력 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근에는 많은 광산도시가 발전하였다. 최근 근해어업에 의한 수산물은 주요 수출품목을 이루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콤소몰스크(Komsomolsk-on-Amur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중공업과 경공업이 도시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주요 도시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으며, 태평양 어업기지로 발달하였다. 소련의 극동지역은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유일한 관문으로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우기 1987년 극동지역의 개발계획과 아울러 다국적 경제특구 설치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프리모르스키(연해주)지방은 면적이 165,900km²로 1989년 인구는 226만인으로 이중 77.4%(175.1만인)가 도시지역에 집중해 있다. 러시아 극동함대의 기지인 블라디보스톡은 1991년 1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되었다.

2. 극동특구의 출현과정

극동 경제특구는 오랜 계획경제 하에 진행되어온 경제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시기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이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르게는 직접적인 시각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기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UNDP의 국제협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일찌기 국가 기간산업을 공간적으로 분산해 각 지역내에서 자급체제를 이루고, 산업생산의 지역별 특화를 갖추어 지역간의 의존을 줄이면서 조화로운 경제체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같은 과학적이며 지리적인 개발정책은 경제지역화(Economic Regionalization or Economic Regional Zoning)라는 개념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다.⁵⁾ 동시에 각 지역의 특화산업의 생산품을 중앙통제하에 관리하듯이 모든 경제지역을 균형있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체계 아래에 일원화 시켰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계획은 과학과 기술발전이 힘입어 새로운 자원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발

5) J. S. Gregory, ed., *The Geography of the U.S.S.R.: An Introductory Survey* (Moscow: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75), pp.82-83.

전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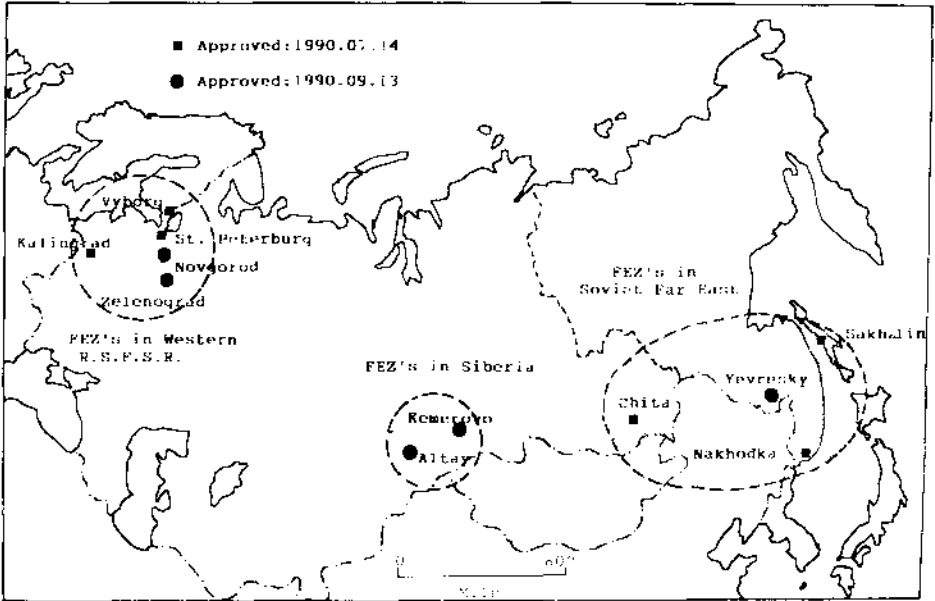
또한 실제적으로 이 공식적인 경제지역(Economic Region)개념은 공업지역과 같이 고도로 통합된 지역경제 유기체로 전개되었다. 이 유기체는 지역내의 대도시 중심으로 내부 생산체계를 통합하는데 교통체계가 유기체의 순환체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한 경제지역이 지역생산 콤플렉스(Territorial-Production Complex)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왔다.⁶⁾ 이들 경제지역의 개념 발달은 시기적으로 다소 변화가 있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재 적용하는 19개 경제지역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지역은 유럽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심지역에서는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심부에서 원거리 지역인 시베리아에서는 지역의 발전단계, 생활수준, 자원분포, 노동력의 수급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까닭에 지역간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BAM의 건설도 이같은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단지 주변지역 일부에만 개발이 진행되었을 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던중 1985년 이래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어, 그간 진행되어 온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1987-2000>이 1987년 7월에 표면화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상에는 자유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실제적인 특구설치 계획에 대한 의지 표명은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연설에서 극동지역에 5개 예상지역을 언급한 것이 그 처음이다.⁷⁾ 그 후 1990년 전국적으로 서부 중앙 동부 3개 지방에 11개의 특구설치를 지정하게 된 것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 중 극동지역에는 치타(Chita), 제위쉬(Jewish AO), 사할린(Sakhalin State), 프리모르스키(Primorsky Region) 등 4개 지역이 1990년 9월까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은 특구지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방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G. Melvyn Howe, *The Soviet Union: A Geographical Stud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econd Edition, 1986), pp.112-113.

7) Allan Rodgers, ed., *The Soviet Far East: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1990), pp.306-307에 인용된 극동 경제특구 설치 후보지역으로 다음 5개지역이 지적된 바있다. 1) Nachodka와 Vladivostok의 서쪽(두만강유역 국경지역); 2) Khabarovsk 전지역; 3) Yuzhno-Sakhalinsk 부근; 4) BAM(Baykal-Amur Mainline); 5) 남부 Kuriles.



<그림 2> 러시아의 FEZ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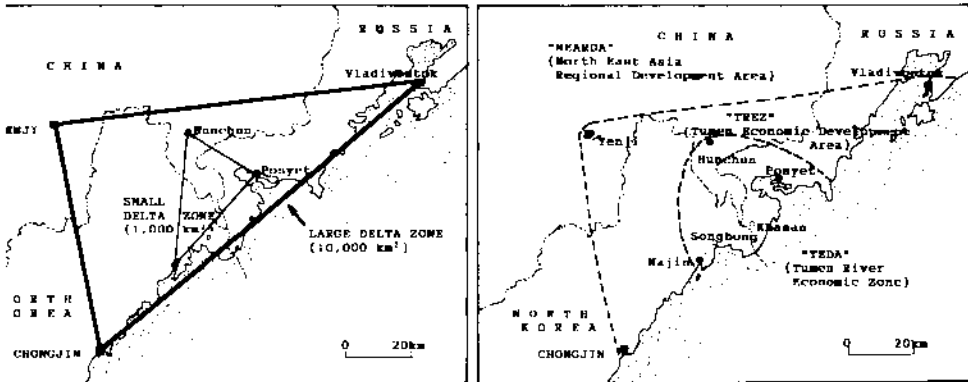
*출처: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Pre-Investment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Economic Zone in Primorsky Region: Development Concept of Greater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 (Vienna: UNIDO, October 1991) p. 19의 Fig. 3-1에서 전재.

그러나 극동지역의 경제특구 출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UNIDO는 동북아시아 협력사업(1992-96)의 일부로 두만강 하류의 러시아지역을 개발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표면화 되었다. 장춘회의에서 러시아측은 극동지역 역할에 대하여 “자원의 제공과 합작공장을 위한 부지제공 등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두만강 근접지역인 프리모르스키 지역 보다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등 기존 항구의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⁸⁾ 하므로써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1년 제 2차 장춘회의에서는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경제특구와 그 위치분제에서 소삼각주(Small Delta Zone)와 대삼각주(Large Delta Zone)의 두 대안

8) 金丰倫,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5-6쪽.

을 제시한 바 있다.⁹⁾ 이 지역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혹은 Special Trade Zone)의 개념으로 3국이 공동 지정하고 개발, 관리하는 형태의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곧이어 1992년 2월 서울 UNDP 계획관리 위원회(PMC)에서는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두만강 경제지역(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 두만강 경제개발지구(Tumen Economic Development Area: TEDA), 동북아 지역개발지구(North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 NEARDA) 등 3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개의 제안은 그 지역범위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후자의 경우 개발지역(Development Area)의 개념이 지도상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없으므로 연결된 선자의 구역과 크게 다르다(그림 3 참조).



<그림 3> 두만강 유역 개발 지역 구분

상기 UNDP의 대안에 따르면 TREZ에서는 하산과 포시에트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TEDA에서는 블라디보스톡까지를 구획하고 있어 이 개발지역에 나호드카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UNIDO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범위 내의 지역은 모두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경제특구로 평가할 수 있다.

9) 소삼각주는 1,000km²의 면적으로서 북한의 나진항, 중국의 경신 또는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을 연결하는 삼각지역; 대삼각주는 10,000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지역이다.

또 다른 하나의 극동 경제특구는 UNDP와 ECFA(The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Association, Japan)의 비공식 제의에 따라 1991년 10월 Vienna에서 발표된 "FEZ Development in Primorsky" 개발계획에 마련된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Greater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GVFEZ)"이 있다. 10) 이 계획에 따르면 두만강 개발계획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두만강 하구의 하산으로부터 보스토치니까지 자유경제지역 설정시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극동지역 경제특구의 출현은 서로 다른 여러 과정이 복합된 상황에서 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복잡한 여건은 아직 두만강 지역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그 분명한 지역적 한계와 정확한 입지는 얼마간 시간을 두고 보아야만 알 것 같다. 그러나 특구지역의 윤곽이 두만강 하류에서 보스토치니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좁은 지역의 수출자유지역이 아니고 지역개발 중심의 광범위한 지역이 상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입지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IV. 극동 경제특구의 입지조건과 문제점

1. 입지특색

극동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시작된 이래 이 지역의 입지적 적합성에 대하여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러시아의 개방과 동북아 협력체 구성에 따른 개발 가능성, UNDP 협조하에 진행된 종합적인 분위기 조성과 태평양 시대의 역할분담에 따른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 등과 같은 국제정치의 역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체성을 갖지 못한채 단지 기존 정치리더적 평가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제시된 논의들이다. 즉, 이 지역이 개발되면 내륙지역으로 공간적인 연계효과와 파급효과에 의해 그간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낙후된 국경지역을 외국자본에 의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과 대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계획, 그리고 나호드카 경제특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입지특성들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된 입지특성을 보면 이 지역은 "풍부한 삼림과 비철금속 광석, 해양자원, 원유, 가스, 석탄, 그리고 중화학공업(철강, 비료 등)의 발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들고 있으며, 불리한 조건으로는 "농업과 경공업

10)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Pre-Investment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Economic Zone in Primorsky Region: Development Concept of Greater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 (Vienna:UNIDO, October 1991).

산물의 심각한 부족, 노동력과 자본의 부족, 뒤떨어진 공업장비와 관리 경험” 등을 지적하였다.¹¹⁾ 특히 두만강 개발과 관련된 6개 국가들의 입지와 상관되는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에 대한 요약된 전망을 보면 극동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과 각종 원료공급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분야에서 취약하거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이 입지평가에는 두만강 유역 개발에서 국가간에 각국 영토 내의 독자적인 특구개발과 강유역을 중심으로 연속된 특구개발 중 어느 것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두만강을 따라 수운을 개선하고 항만을 건조 혹은 하천을 따라 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논의만이 부성하다. 이러한 입지 정책적인 사항이 논의중이라 기존 기반시설과 교통체계에 대한 언급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표 1> 경제특구 개발 입지의 경제적 보완성*

★: 강(Strengths) ●: 취약(Weakens) —: 적용 불가(Not applicable)

	자본	기술	경영	노동력	에너지	원료	농업	목축	공업
극동러시아	●	—	●	●	★	★	●	—	●
중국	●	●	●	★	★	★	★	—	—
북한	●	●	—	★	—	★	●	●	—
한국	★	★	★	●	●	●	—	—	★
몽고	●	●	—	—	—	★	●	★	—
일본	★	★	★	●	●	●	●	●	★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6 January 1992), p. 17에서 전재.

이미 정부에서 경제특구로 지정한 나호드카 지역의 입지특성으로는 1) 항구로부터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접근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점, 2) 4개의 부동함과 수송 부두시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화물 터미널, 비교적 정돈된 육·해·공 교통망이 있다는 점, 3) 극동의 산

11) 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Pyongyan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Consultation with Participant Governments, 16-18 October 1991), p.2-2에서 Chen Cal and Others,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Exploitation of Triangle Area of Lower Tumen River" (Changchun: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1991)의 인용을 재인용 하였음.

업기지로서의 각종 산업의 발달과 고급 노동인력의 확보 가능 및 거주자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이어서 민족문제가 없다는 점, 4) 다수 건설 관련업체로 구성된 건설기지와 각종 산업시설을 위한 넓은 부지의 보유, 그리고 5) 풍부한 관광자원과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식품공급기지가 있다는 점 등이 이 지역이 선택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¹²⁾

대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계획연구에서의 입지특성중 유리한 조건으로는 ① 풍부한 천연자원(Rich natural resources), ② 광활한 부지(Vast land), ③ 아시아 무역의 편리(Convenient for trade with Asia), ④ 경제특구 창출에 대한 열망(Enthusiasm for creation of FEZs), ⑤ 고급전문인력(Highly-educated population), ⑥ 성숙된 소비자 집단(Mature consumers), ⑦ 적정규모의 지방시장(Sizable local market), 그리고 ⑧ 기초 및 선진 과학에서의 강한 능력(Strong capability in basic, advanced science)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불리한 여건으로는 ① 정치/경제제도의 무질서(Disorder in political/economic systems), ② 혹독한 기후(Severe climate), ③ 경제특구 내의 소규모 노동시장(Small labor pool inside FEZ), ④ 응용 및 제조기술의 취약(Weak applied/manufacturing technology), 그리고 ⑤ 중앙계획에 기초한 배분체계(Distribution system based on central planning) 등이다.¹³⁾ 실제적으로 이 경제특구의 지역범위는 이러한 일반적인 입지특성과 기존 경제특구계획, 관리가능 규모, 기능적 보완성, 자연지형의 연속성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안되고 있다.

2. 입지특색상의 문제점

두만강 유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보스토치니까지 이르는 지역에 경제특구 설치와 관련된 입지적 특색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제 아시아 경제특구 지역에서 관찰되는 상황과 비교하여 심각한 장애요소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자연환경의 제약점, 자원의 활용문제, 노동력 확보문제, 지역연계 문제, 그리고 국경지역 개발문제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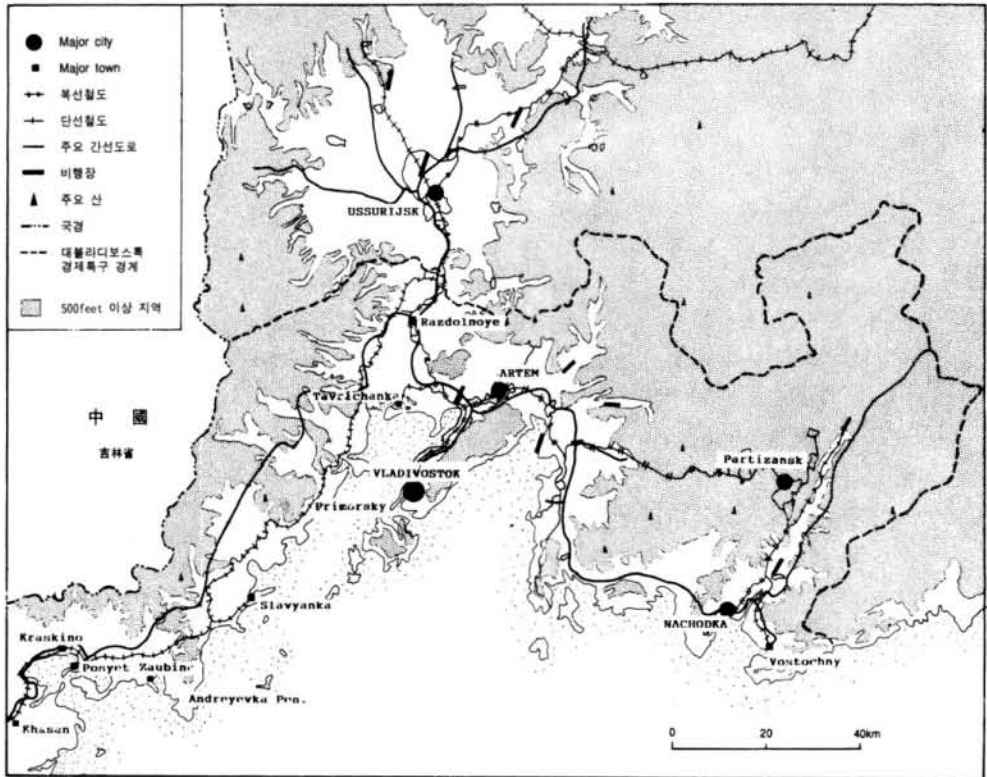
(1) 자연환경의 제약점

두만강 하류에서 보스토치니까지는 대략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좁고 깊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는 이

12) 대한무역진흥공사, 「소련극동 시베리아의 현황과 진출전망-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무공자료 91-61 (서울: 1991), 48-52쪽 그리고 李昌在,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覺과 政策方向」,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1-20), 214-222쪽 참조.

13) UNIDO, 앞의 글, pp.26, 37.

해안지역은 높고 낮은 구릉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평지의 발달이 제한되어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해안선을 따라 대략 200m이하의 평지지역의 발달은 불규칙하고, 대부분이 구릉지성 산지(hilly terrain)를 이루고 있으며, 낮은 지역은 상습적인 습지가 발달하고 있다. 내륙으로는 바로 700-1500m를 이루는 높은 고지대가 연속되어 있어 지역개발 여건으로는 배후지역과 관련하여 불리한 지형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Primorsky 남부지역

블라디보스톡의 북쪽으로 우수리스크까지의 개활한 넓은 지역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지형적으로 소규모의 공단을 건설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가다 관련산업의 유치와 주택지역의 개발이나 배후도시의 건설 등과 같이 부지를 유리한 입지를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하려고 할 때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지역은 화산활동의 영향권에 있고 지진대 상에 위치¹⁴⁾하고 있어서 지역개발을 위해 이들 취약지형을 배제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위도상으로 이 지역은 대부분 북위 42° 15'으로 북쪽에 있어 5개월 정도의 토양동결 기간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0°C 이하의 달이 역시 5개월이나 된다.¹⁵⁾ 이렇게 냉후한 일기는 겨울기간 동안 이 지역의 주요 항구들이 하역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일례로 블라디보스톡은 1-5개월간 쇄빙기(ice breaker)가 필수적으로 요망되고 있다.

강우량은 연 814.1mm이며 여름 기간이 겨울에 비하여 6배 정도로 강우집중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평지지역에서는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평지와 산간지 접촉지에서는 해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해주 해안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있는 위험한 야생 동식물이 이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다소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새로이 유입되는 대다수 노동인구의 정착에 부분적인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자연환경의 일부 요소들이 지역개발 전반에 유리한 조건 보다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자원활용의 문제점

이 지역입지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요소의 하나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자유지역 내에 유치하게 될 업종과 관련시켜 그 활용면에서 볼 때, 이들 자원의 생산과 매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못하여 낙관적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남부 프리모르스키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서 갈탄과 무연탄, 역청탄 등의 생산과 매장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 내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¹⁶⁾ 원유와 가스가 극동지역에서 풍부한 자원이지만

14) Philip R. Pryde and Victor L. Mote,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Biosphere Protection in the Soviet Far East" in Allan Rodgers, ed., 앞의 글, pp.43-44.

15) Vladivostok의 기온과 강우량(1951-1980년간의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Av
기 온	-13.4	-10.8	-2.7	4.1	9.5	12.9	17.4	19.5	15.5	8.4	-1.1	-9.4	4.2
강우량	14.9	19.7	25.0	62.4	73.6	103.1	123.5	149.4	129.4	62.3	34.1	16.4	814.1

16) 이 지방의 연간 생산이 약 2,000만톤(1990)에 달하였으며, 주요 석탄산지로는 리포르치(Liportsy), 페티크노브카(Pettiknovka), 파르티잔스크(Partizansk), 아르템(Artem)을 중심으로 하여 3,809백만톤이 매장되어 있다.

모두가 하바로스크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파이프 라인으로 수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전력자원의 시설용량이 현재 이 지역내의 전력 생산소비에 겨우 충당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 북부지역에 풍부한 수력자원은 전력 수송거리가 멀어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주식, 아연, 납, 금, 중석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광물이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절대 필요한 원자재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원광이 자유지역 내의 경공업 내지 첨단산업분야의 중간재 원료로 쓰이기 위하여서는 몇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의 이같은 자원 분포의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송체계의 정비와 관련산업의 유치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인구와 노동력 확보 문제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치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노동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한 이 지역의 인구는 대략 140만인(1989)이며 이 중에 도시인구가 110만으로 80%에 육박하고 있어 배후 농업지역으로 부터 노동력 공급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도시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가 극동 해군기지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동력도 교육수준이 높은 고급 백인 러시아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지역내의 공업종업원의 구성에서 전산업이 30%이며, 종업원은 모두 21만 6천인(18), 이들은 공업 수송센터, 선박수리센터, 봉재, 피혁, 구두 콤파나트, 가구생산, 전력생산, 석탄생산, 목재생산, 어업, 통조림공업, 식품공업, 광업용 기계, 수산기계, 전기가기 등과 관련된 고용들이다.¹⁹⁾ 이들 기초위에 새로운 수출공단이 이 지역에 5개에서 10개 정도 입주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본 노동력만 하더라도 최소 10만에서 20만dls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 기존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개의 수출자유지역에는 노동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 노동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연령계층 역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성이 쉽지 않다. 그 밖에 노동력의 절대수 확보와는 별개로 자유지역의 성공적인

17) 이 지역의 최근 전력 시설용량이 3개 화력 발전소를 모두 합쳐서 불과 122만 kw(블라디보스톡 - 44만kw, 아르템 - 40만kw, 파티잔스크 - 28만kw)로 현재 울산시 하나의 전력생산 능력의 1/2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8) UNIDO, 앞의 글 p.40.

19) 한소평화경제연구소, 「최신 소련극동총람」 (서울: 제 3무학사, 1991), 272-273쪽.

운영은 상당수의 숙련된 기능공(semi-skilled labour)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특구의 하나인 심천특구를 시작할 때 상당수의 기술 노동자를 홍콩으로부터 유치해 왔던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즉 인구 500만이 넘는 홍콩이라는 거대한 노동시장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었다는 데 유의해야만 한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근거리의 300만 인구의 대도시 부산에 근접했던 마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부족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하여 중국의 한국인 유치나 러시아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인의 재배치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우기 1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여 이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할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이 앞선다.

(4) 지역 연계 문제

네번제 문제는 설치되는 경제특구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내외의 기존의 각종 산업과의 연계, 체계적인 서비스의 연계, 수송연계 그리고 특구내에 필요로 하는 원자재 공급연계가 얼마나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특구내의 조업이 초기에는 거의 완제품을 생산하지만 국제시장 경기변동에 따라서 주문생산의 폭주 혹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역내 조업의 일부를 역외 관련업체에 위탁하는 즉, 하청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때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구성된 경직된 산업체제에서 이에 얼마나 적응이 될까 하는 문제이다. 우선 관련 생산업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있더라도 관리능력과 기술수준에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심천이나 마산은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광저우(廣州)시와 부산 등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즉 현시점에서 경제특구 역내 생산의 30% 이상만 국내 기업연계로 이루어지는 역외가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분야에 대하여 기대란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과 기술, 시설이 투입된 이 지역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뒤따라야만 한다. 이에 관련된 보수, 수리, 소모품의 공급, 기타 은행, 세관, 종업원 주택문제 등등의 각종 서비스분야가 지원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필요한 시설은 특구 설치시에 감안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도시 서비스 기능을 현재 러시아의 어떤 도시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원활한 교통망의 연계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해운, 항공교통을 통한 수송연계는 경제특구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지도 3>에서와 같이 기본 도로중에서 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고속도로(2차선)외에는 모두가 일반도로로서 그 포장상태나 관리유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

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동서 도로연계는 사실상 지형상의 이유로 해상항로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이다. 잘 발달된 해상항로는 도로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위가 극심한 겨울 기간에는 이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본다. 철도교통은 일부 지선을 제외하고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어, 북부지방 자원수송에 유일한 수송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제품들이 상품으로 포장될 때는 이 규격이 컨테이너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도로와 해상교통의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와 같이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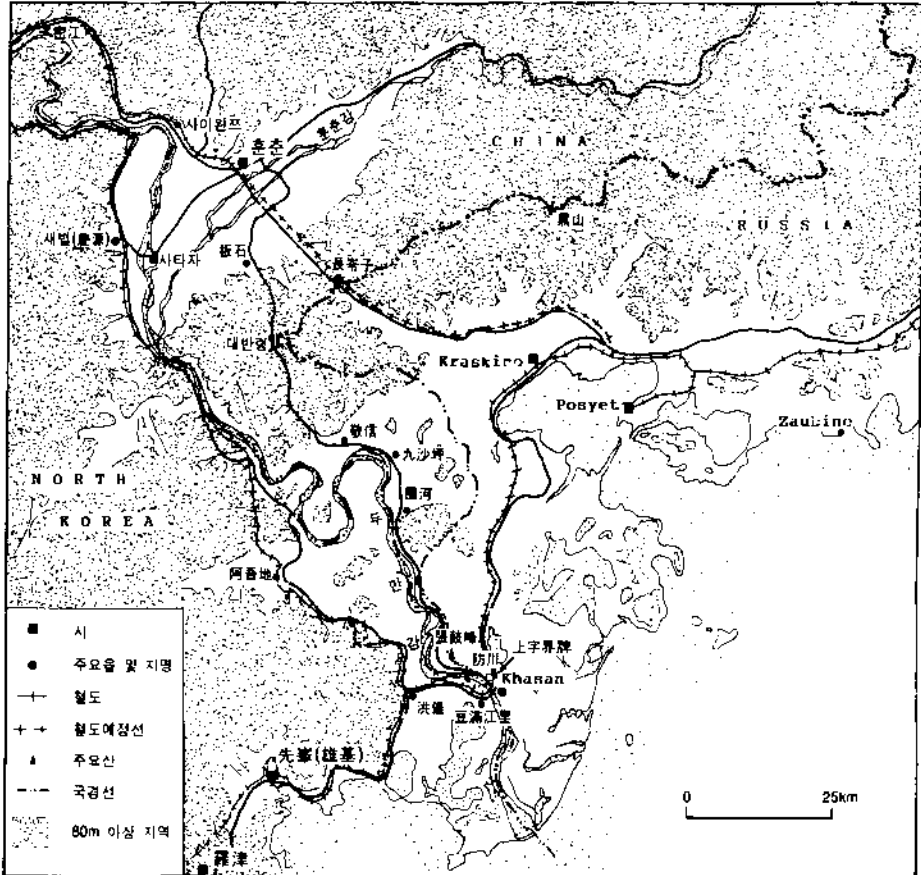
아르템(Artem)부근의 비행장 외에 8개의 군사 비행장이 있는데, 이들의 일부분이 상업용으로 전환된다면 수송연계 부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해상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은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그리고 그 외의 확장 예정지를 모두 합치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요 국제 정기화물선의 해상항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이미 이 지역의 자원생산이 경제특구에서 요구되는 원자재를 어느 정도 대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지만, 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파급효과의 극대화는 지방 원자재의 대체비율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단계에서 임산가공 분야, 수산가공,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원공급 연계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5) 두만강 국경지역 개발 문제

소위 소삼각주로 알려진 두만강 하류 국경지역의 개발에 따른 문제는 크게 이 지역 자연환경의 문제, 생태계 파괴와 환경 보존, 그리고 항시 불안한 국경지역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삼각주 중에 러시아쪽의 두만강 경제지역은 대체로 포시에트를 지나 안드레예브카(Andreyevka)반도까지를 개발권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 지역의 지형상의 문제는 두만강 하류의 수문의 문제점과 포시에트만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좋겠다.

러시아가 국경으로 접해 있는 두만강 하류지역은 두만강 철교와 중국의 경제 표시지점인 上字界牌로 부터 바다까지가 불과 15km 밖에 되지 않는 지역으로 대부분이 80m 이하의 저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사구지형, 그리고 수많은 석호로 이루어진 해안지형이 발달해 있다(그림5 참조). 하구를 따라 발달된 이러한 지형은 두만강 수문의 특성과 깊이 관련되고 있다. 두만강 하류는 대략 훈춘의 사이완초로부터 하구까지 146.5km로 하상의 폭이 240-500m 정도이며, 홍수시기에는 400-1500m로 양안에는 넓은 사주와 모래언덕이 발달하며, 많은 하중도가 있다.



<그림 5> 두만강하류와 포시에트만 연안

圈河 수문점에서 최대유량이 $11,300\text{m}^3/\text{sec}$ 이고, 평균은 $218\text{m}^3/\text{sec}$ 로서, 그 잔 폭이 압록강의 1/4에 밖에 안된다. 수심은 3-4m이고, 얇은 지점은 1-2m로 하천의 함사량이 $0.64\text{kg}/\text{m}^3$ 에 달해 연 평균 수사량이 406만톤으로 하천의 퇴적 속도가 타하천에 비하여 높은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하천을 이용한 연계나 하항의 건설을 위해서는 함사 유출량의 1일 제거량이 1만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5-6월과 9-10월 기간은 유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 운하의 건설이나 댐건설을 통한 수량조절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는 2-3천톤의 선박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이 기후적으로 태풍권에 속해 있어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천 범람에 대비하여야 하며, 아울러 하류지역이 대부분 5m 이하 지역으로 잦은 침수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겨울 동안인 11월에서 4월까지의 하천 동결로 인하여 하운 이용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하천개발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지역개발은 많은 장애요소가 잠재하고 있다.²⁰⁾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논의된 바 있는 두만강 하류지역에 화성(아오지)-敬信(Jingxin)-九沙坪(Satoutze)-Lebedinoje(러시아 지역)를 연결하는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 혹은 UN 도시를 창출하려는 아이디어²¹⁾는 이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이 도시건설에 적절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사평지역의 넓은 배후지는 9개의 하천 배후습지와 호수로 이루어진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다.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시각으로는 두만강 하구 보다는 지형적으로 안정단계에 있는 포시에트만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현재 구상중인 훈춘에서 중러 국경에 위치한 張嶺子를 거쳐 러시아의 크라스키노까지 연장 40km의 철도가 부설²²⁾된다면 포시에트만 연안은 자루비네-트로이치(Zarubine-Troitsi)도시 건설계획과 훌륭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 유역 개발과 관련된 부차적인 문제는 자연 생태계 파괴와 환경보존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하류지역은 3국의 접경지역으로 지난 1938년 張鼓峰사건으로 하천을 이용한 항해가 중단된 이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온 지역이다. 현재 경신부근에서 송어를 비롯하여 각종 회유성 어류와 두만강 특산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 양안에는 울창한 각종 자연림과 수목이 가득하여 훌륭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서두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하천 양안을 따라 발달한 사막지역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높은 사구(砂丘)의 형성 원인은 이 지역 탁월풍과 관련하여 연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극동의 중·러 국경지역은 오래동안 자원 확보와 다양한 인종분포 그리고 수자원 이용 때문에 국경분쟁이 끊임이 없었던 곳이다.²³⁾ 두만강 하류도 마찬가지로 3국의 접경지역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국경분쟁이 상존하여 온 지역의 하나

20) 류충건, "두만강의 수문 특성과 자원개발문제,"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특별강연 (1992, 2월)에서 인용.

21) 최상철, "두만강하구개발과 3국간 역동관계," 한국지역학회 특별강연(1992. 9. 18)에서 인용.

22) 한국경제신문, "길림성-러 연해주 연결," (1992. 9.16).

23) U. S. Department of State, "China-U. S. S. R. Boundary," *The Geographer*, No.64 (Washington D. C., 1966).

이다. 특히 하류지역에서는 하천의 자유선행으로 수심의 경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사이완초로부터 하류까지 40여개의 하중도는 그 형성과 형태의 변화가 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염려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 집중시킨 군사력과 군사시설(military infrastructure)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서 산업시설을 배치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이 최근에 개방되었지만 아직 군부의 통제하에 있어 외국인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나 하면 북한은 하천 국경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민간인 거주와 하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간에 정치경제적 불만이 조성되면 아무리 국제 하천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 파급 효과가 미치는 지역이 이 국경지역이 될 것이다.

V. 결 론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특구 설치는 구소련의 개방정책에 따른 1988년 시베리아 개발계획과 1990년 유엔 주도하의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구소련이 오래동안 지속해온 경제지역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 이제 극동지역을 개발하여 태평양지역과 연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극동지역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나호드카특구 하나가 지정되어 있으며, 러시아 자체의 대블라디보스톡 특구계획과 UNDP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다국적(multi-national) 특구계획이 두만강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일반적 경제특구의 설치목적과 입지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프리모르스키 남부지방의 입지조건 중 천연자원, 에너지 분야, 항구시설, 넓은 공장부지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여건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순수 지역개발이 목적이라면 이들 지역조건이 탁월한 것으로 고려되지만 외국자본, 기술, 관리운영방법을 도입하여 국제시장에서 외화를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공업주도형 산업화를 꾀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경제수준이나 지역특성이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자연재해의 가능성, 열악한 기후조건, 천연자원의 실용성 문제, 제한된 노동인구의 확보와 수급, 대도시 서비스와 역외가공 관련시설과 지역연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특구개발과 설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두만강 하류 지역개발에서는 두만강 수운개발은 하천의 수문 특성상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보존이라

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우기 국경지역으로서 집중해 있는 군사시설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국경분쟁 등으로 지역적 긴장지역이었다는 점도 특구입지의 장애요소라고 지적될 수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은 유엔이 동북아 경제협력과 러시아 지역경제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주관한 구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추상화된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실제적인 경제특구 설치와 관련된 고유한 입지와 비교할 때 아직 많은 조건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충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입지에 대한 각분야의 연구가 뒷받침되기 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Free Export Zones in Far Eastern Russia

Ki-Suk Lee

This paper analyzed the locational advantages and problems of Russia's Far Eastern Free Export Zones (FEZ) by comparing them with the general loc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existing FEZ in Asian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Free Export Zones in the Far Eastern region of Russia was a part of the Siberia Development Planning effort initiated in 1988 as a part of Gorbachov's open-door policy, and the other planning was initiated by the UNDP project for North East Asia Economic Corporation. Practically, the emergence of Siberia's FEZ results from the failure of the traditional policy of Economic Region development particularly in Pacific Siberia and the new policy to reach the Pacific Rim Area. Currently, the Nachodka FEZ is already designated for development, and two other areas, lower Tumen River area and Greater Vladivostok Region, are under consideration.

Geographically, South Primorsky with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energy supply, good port facilities, transportation networks, and vast open space for industrial estates would be a good location for an FEZ. However, these conditions are not the only that must be met to ensure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FEZ. If Russia intends to develop purely a regional economy, these are all assets that would be used to achieve this goal, but if she is trying to archiv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based on of FEZ, this area does not qualify to meet all conditions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characteristic. This area is faced with many problems such as potential natural hazards, a long severe cold winter season, the difficulty of direct usage of all natural resources in the FEZ, limited labour market, absence of urban services and a lack of domestic linkages for subcontracting, and unreliability of regional linkage systems.

The Lower Tumen River Development project is opening river for navigation with a series of locks and dams that even inconsistent of flow of the river. Also, The development of the river shore areas will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natural ecology and environmental preserves. Furthermore,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the heavy concentration of military infrastructure along river and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border countries because along the river boundary.

The selection of FEZ locations in this region of eastern Russia seems to result fro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manipulation of the North East Asia Economic Corporation and UNDP, and by Russia's need for a gateway to the Pacific Rim. The FEZ locations that have been selected for development do not really meet the basic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uccessful export based industrial economy in Eastern Russia. The Korea government should limit the investment for these Russian FEZ until a revaluation of these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made to ensure their success.